



한국과 캐나다의 사회적처방 시범사업 평가: Capacity Mapping Tool을 사용하여*

남해권
연세대학교

임수빈
연세대학교

이상민
한국국제협력단

이유림
연세대학교

사회적처방은 영국 정부, 특히, 고독부(Ministry of Lonliness)에서 고령자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온타리오주에서 사회적처방을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 운영중에 있다. 한국은 한 대학에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개발하여,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처방 시범사업 중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두 시범사업 사례의 비교를 통해 각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capacity mapping tool을 사용하여 분석,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국은 아직 공적인 부문에서의 사회적 처방제도가 아닌 대학 차원에서의 시범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있었고, 캐나다는 보건소 조직을 이용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즉, 한국 시범사업의 경우는 대학 연구소에서 국가연구비와 대학의 링크사업단 예산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있었고, 캐나다의 경우는 지방 정부 예산에 의해 11개 보건소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두 국가 모두 사회적 처방을 경험한 바 있는 유경험자를 활용하여 차기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돕도록 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었다. 한국은 마을훈장이라는 이름으로 양성하고 있었고, 캐나다는 health champion 제도를 고안,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사회적처방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두 사례 모두 단일처방이 아닌 복합처방(compounded prescription)을 적

* 본 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RF-2018 S1A5A2A03039G36).

용 운영하고 있었다. 즉, 다양한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고독감, 우울감, 사회적 연결감, 자기효능감, 자존감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양 국가 모두 고독감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사업과 연계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자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한국은 COVID-19용 위생용품 제작 판매, 텃밭에서 재배한 과일 판매 수입금 등을 노인 대상자의 생활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상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국가 차원의 사회적처방 사업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기존의 사회적처방 관련 자원의 파악과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사업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주제어: 사회적처방, 한국, 캐나다, capacity mapping]

I. 서론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 자살자 수, 고독사 증가를 초래하는 고독(loneliness)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어,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 등의 주요 선진국들의 공중보건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 최근호에서는 2020년 3월 이후 런던에서만 700명 이상이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숨졌던 사실을 기사화하였다(가디언지, 2020.06.08).

영국 고독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고독을 상정하였고 2018년에 고독전략(loneliness strategy)의 일환으로 사회적처방의 정책적 추진을 공식 발표하였다(Savage et al., 2020). 그 후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서는 영국의 주치의 GP(General Practitioner)를 활용한 사회적처방 제도를 도입하였다(남은우, 2020a). 이후 영국에서만 사회적처방에 대한 84건의 정량적, 정성적 논문이 발표되었다(PubMed 2018.01-2020.08 기준). 이에, 영연방국의 일원인 캐나다에서도 사회적처방 제도를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 운영하였다. 이 사업은 캐나다의 수도 토론토가 위치한 온타리오주 일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로 2020

년 3월 ‘온타리오에서 실시 된 사회적처방에 관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다(AHC, 2020).

Kings Fund (2017)에 의하면 사회적처방이란 의사 및 1차 보건의료 종사자가 환자를 보다 넓은 비임상적 서비스로 소개(refer)하여 임상적 치료와 병행하여 환자를 관리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Bickerdike et al., 2017; Kings Fund, 2017). 또한, 사회적처방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의 결과물이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전인적 접근방식(holistic approach)을 취한다 (The Kings Fund, 2017).

사회적처방의 학술적 근거 또한 존재한다. 7676건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16건을 고찰하였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사회적처방을 실시하였던 결과, 신체지표(혈압, 체중, 콜레스테롤 및 혈당 수준 감소), 건강 관련행태지표(신체활동 증가, 알콜섭취, 처방약, 불건강식이 감소), 정신건강지표(자기신뢰감, 자존감, 자신감 증가), 사회교류지표(고립, 고독감 감소), 일상생활 기능지표(인지기능 향상, 일에 대한 욕구, 질병 및 사고 이후 직업 복귀, 동기 부여, 사회적처방으로부터 도움받기)가 긍정적 방향으로 조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중의 하나로 사회적 처방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 중이기도 하다. 후생 노동성 산하의 일본의료 정책기구 정책보고서에 의하며, 지역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민 참여 기전의 개발, 치매 카페 설치 지원 등을 통한 노인의 자립과 사회적 자부 향상 등의 정책을 사회적 처방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남은우 외 역, 2020).

캐나다 시범사업을 실시, 평가하였던 Alliance for Healthier Communities: AHC(2020)에서는 건강결정요인의 80-90%가 사회적 건강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에서 온다고 보아 사회적처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AHC, 2020). 즉, 건강 및 웰빙을 위해서는 임상적 치료와 병행하여 개인에 있어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한 소속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이다. 온타리오주의 사회적처방은 11개소의 지역보건소(community health centre: CHCs)에서 실시되었고 사회적처방 모델의 다섯 가지의 핵심 요소인 ① 서비스 이용자 ② 사회적 처방자 ③ 네비게이터 ④ 사회적 처방 ⑤ 데이터공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사회적 처방 시범사업 결과 분석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

강도시연구센터에서 한국연구재단과 연세대학교 링크사업단의 재정 지원으로 시범사업 중인 원주시 흥업면 사회적처방 사업 개발 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처방과 같은 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WHO가 개발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capacity mapping tool을 들 수 있다. 맵핑(mapping)은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개입연구의 초석이 되는 과정이며 연구 실행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다 (LaFond 2002). 또한, capacity mapping tool을 활용하여 존재하는 자원 및 역량 수요(capacity needs)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capacity mapping에 있어 표준, 최적화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연구자와 사업역량에 알맞게 개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Mittelmark et al.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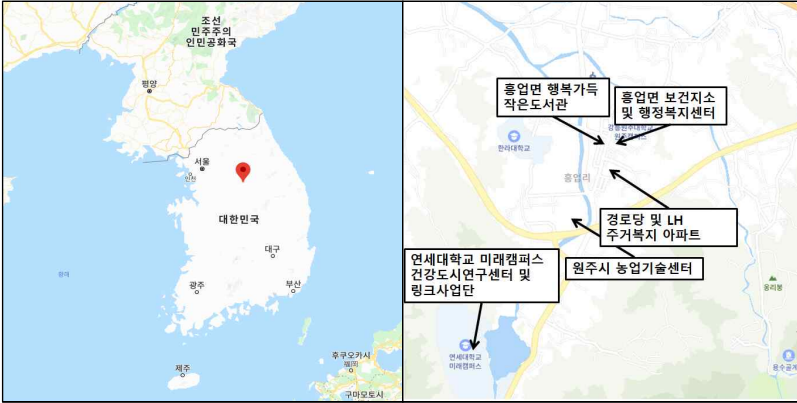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처방 사업을 해외 사례인 캐나다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사회적처방의 종류를 비교하고, 둘째, 사회적처방의 주요 활동 내용 비교, 셋째, 사회적처방 사업의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비교, 넷째, 사업 관련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를 비교하고, 다섯째, 소득창출을 비교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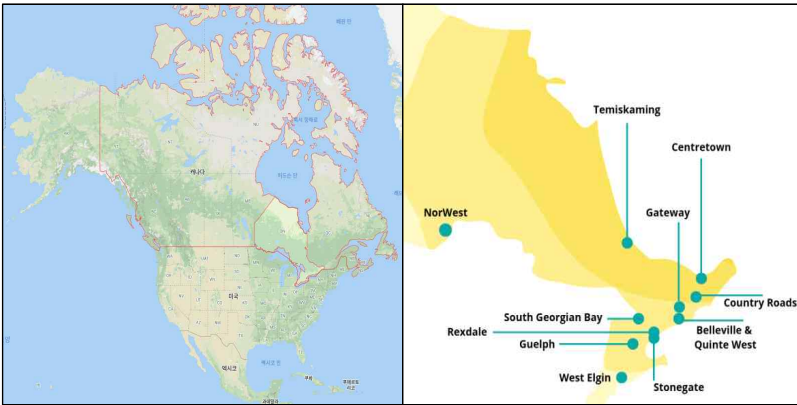
1. 연구 대상 지역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의 사례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에서 실시 중인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의 사회적 처방 시범사업지로 하고, 캐나다는 온타리오 주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처방 시범사업지로 한다(그림 1), <그림 2>.

〈그림 1〉 한국의 시범 사업지역-원주시 흥업면:1개 지역



〈그림 2〉 캐나다의 시범 사업지역-온타리오주: 11개지역



2. 분석 도구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분석 도구로는 WHO (2010)에서 건강증진사업 일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개발한 capacity mapping tool을 활용하였다. ([https:// apps.who.int/iris/handle/10665/116633](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11663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 원주시 흥업면과 캐나다는 온타리오주의 사회적처방 사업을 평가하여, 비교 분석을 하였다. Capacity mapping Tool에 의한 평가항

목은 각 연구대상지의 ① 인구 및 지리 현황 ② 관련 문헌, 정책, 법 규제 ③ 사회적 처방의 요소 ④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⑤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⑥ 재원, 예산 및 소득 창출 여부 ⑦ COVID-19 대비 방역 및 보건의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 등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은 Medline, Embase, Google Scholar, WHO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도 5월부터 2020년도 7월까지였다. 한국의 자료는 사회적처방 관련 논문과 매뉴얼 중심으로 비교 조사하였다. 캐나다의 자료는 Alliance for Healthier Community (AHC)에서 작성한 캐나다 사회적처방 시범사업의 최종보고서인 Social Prescribing in Ontario Final Report(2020) 자료를 중심으로 Capacity Mapping Tool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지별 지리 및 인구 현황

국내 사회적처방 사례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례의 지리 및 인구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지별 지리 및 인구 현황

항목 명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
DEMOGRAPHY		
총 인구 수	9,701명(2018 기준)	1,471만명(2019 기준)
연평균 인구 증가율	-1.9%	1.8%

인구밀도(km2)	152.8명	14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	1,824명(추정 인구)	-
기대여명	82.0세(2018기준, 강원도)	82.4세(2018기준)
GEOGRAPHY		
도시 수	1	52개
subdistrict	N/A	N/A
village	N/A	N/A
지역 위치	동아시아	북아메리카
사회적 처방 실시 지역	1개소	11개소

2. 각 연구대상지의 사회적처방 관련 문헌, 정책, 규제

국내의 사회적처방 관련 문헌은 2019년 논문 1건, 2020년 가이드라인 1건이 있다. 두 문헌 모두 한국연구재단 및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링크사업단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가 주관하여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처방에 대해 기술하였다.

국내사례에서 2019년에 발간된 논문(송그룹 외, 2019)은 4주간 시행한 사회적처방 사업의 효과를 양·질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2020년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2020)은 사회적처방의 일환으로 실시된 뮤직스토리텔링의 이론적 배경과 사회적처방 프로그램 실시 방법을 소개하였다.

캐나다의 사회적처방 관련 문헌은 2020년 보고서 1건, 논문 2건이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발간한 최종 보고서(Alliance for Health Communities, 2020)는 캐나다 보건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온타리오주 Alliance for Health Communities가 주관하여 11개의 지역보건소(CHC)에서 실시한 최초의 사회적처방 사업 전반을 소개하였다. 사회적처방 도입 배경부터 ①성공적인 사회적처방 프로그램 실행을 가능케 하는 요인, ②사회적처방 운영 핵심 요소, ③사회적처방 운영 주체들과 각각의 역할, ④11개 지역건강센터에서 운영한 사회적처방 내용을 기술하였다.

Kate Mulligan와 연구원들(2020)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회적처방 시범사업의 배경과 결과를 소개하며 사회적처방이 서구 의료 체계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을 가능케 할 잠재력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Savage와 연구원들(2020) 또한 사회적처방이 노인들의 외로움(Loneliness)에 대한 임상적 치료를 보완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Savage와 연구원들(2020)은 사회적 처방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의도치 않은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평가를 통해 근거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표 2〉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의 사회적처방 관련 문헌

항목 명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제목	사회적처방으로서의 뮤직스토리텔링 실행 매뉴얼 (보고서)	강원도 한 농촌지역에서의 노인 우울증 경감을 위한 사회적처방 프로그램 효과평가 (논문)
연도 (공동) 저자	2020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2020 송그룹 외
문서 개요	110페이지(표지·제목·목차 7페이지, 감사의 글 1페이지, 주요 내용 62 페이지, 부록 38페이지, 참고문헌 2페이지)	11 페이지(초록 2페이지, 주요 내용 7.5페이지, 참고문헌 1.5페이지)
문서 목적	사회적처방과 그 일환으로 실시된 뮤직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향후 흡사한 개념의 프로그램 운영 시 참고할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함	뮤직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농촌 지역 노인의 우울감 감소 및 노인의 사회적 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주요 내용	2016년 영국 NHS에서 시행된 '사회적 처방' 제도를 모티브로, 건강도시연구센터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사회적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함. 흥업면 행복 가득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자원들과 협력하여, 대상자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뮤직스토리텔링'을 사회적처방 시범사업에 활용함.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임대아파트 주민복지관에서 만 65세 이상 남녀노인 14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처방(뮤직스토리텔링)을 시행함. 대상 노인의 평균 우울감 점수는 4점 감소하였고, 포커스 그룹 집단 인터뷰(FGI)를 통해 참여한 대상자들이 즐거움을 느꼈고, 자존감 향상·사회적 관계 확장 등 효과가 확인됨. 이에 사회적처방 일환인 뮤직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새로운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함.
문서 유형	매뉴얼	보고서
작성 언어	국문	국문
정책 법률	N/A	N/A

〈표 3〉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회적처방 관련 문헌

항목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제목	Social Prescribing in Ontario: Final Report	Social Prescribing: Creating Pathways Towards Better Health and Wellness	Looking Before We Leap: Building the Evidence for Social Prescribing for Lonely Older Adults
연도	2020	2020	2020
저자	Alliance for Healthier Communities	Kate Mulligan*, Sara Bhatti, Jennifer Rayner, Sonia Hsiung	Rachel D. Savage*, Nathan M. Stall, Paula A. Rochon
개요	80pg (표지·제목·목차 4pg, 개요 2pg, 주요 내용 32 pg, 부록 38pg, 참고문헌 4pg)	3pg(주요 내용 2.5pg, 참고 문헌 1pg)	3pg(주요 내용 2.5pg, 참고 문헌 0.5pg)
목적	온타리오 주에서 실시된 캐나다 최초의 사회적처방 사업이 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실시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실시 후 결과를 공유함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실시된 사회적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등 건강측면의 증거를 활용해 사회적 처방을 의료체계의 구성요소로 구축하고자 함	어떠한 조건에 있는 노인들이 사회적처방으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처방의 가치 및 위해를 파악하고자 함
주요6 내용	온타리오주 11개 지역보건소 (Community Health Centres;CHC)가 캐나다 최초의 사회적처방 사업을 실시함. 지역별로 수요 및 역량에 따라 맞춤형 사회적 처방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100명의 대상자에게 3,300여건의 사회적처방이 시행됨.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된 핵심 결과는, ① 대상자의 정신적·정서적 건강, 소속감과 사회적 연결성 향상 및 고독감 완화 효과 발생, ② 보건의로 제공자들이 대상자의 의료기관 재방문 감소를 확인하고, 사회적처방의 유용성을 확인함, ③ 사회적처방이 의료적 돌봄, 관련 전문가 조직간 사회적 지지망으로의 깊이 있는 통합을 가능케 함.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지역 보건소를 통해 시행된 사회적처방 시범사업의 결과를 통해 잠재력을 확인함. 영국에서도 정부의 긴축과 지역 사회 건강센터가 없음에도 각 1차 진료 네트워크 속 한 명의 새로운 링크워커(Link worker)를 통해 핵심 요소로 구축하고 있음. 이처럼 사회적처방은 건강과 사회 복지를 하나로 연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자원과 예방을 통해 임상적 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저비용으로 건강결정 요인 및 웰빙을 다룰 수 있는 중재임. 즉, 사회적처방은 서구 의료 체계가 추구하는 개인화와 통합화가 함께 실현될 수 있는 치료 모델을 제공 가능한 체계임.	노화는 건강 저하 등을 동반하여 노인에게 흔히 발생함. 사회적처방이 의도적으로 건강과 사회적인 부분을 연결해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 내 사용 가능한 자산을 활용해 임상적인 치료와 중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함. 다양한 평가 및 연구 결과에서 환자의 외로움 개선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등이 보고됨. 대부분의 의료적 중재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적용되는 것처럼, 사회적처방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 하면서 의도한 이점을 보장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증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음. 즉, 보다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함.
유형	보고서	논문	논문
언어		English	

3. 각 연구대상지의 사회적처방 요소 (내용 및 인력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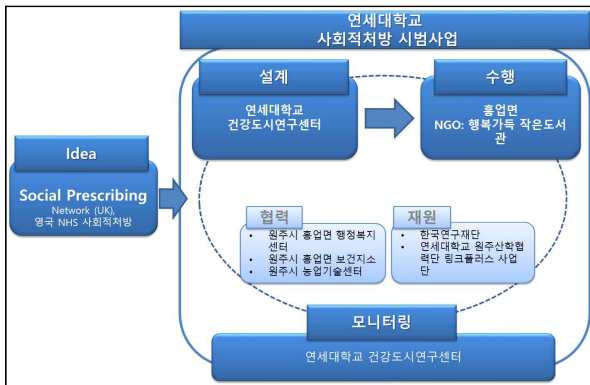
1) 사업목표

국내 사회적처방 사례에서는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흥업면 소재 65세 이상 독거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캐나다 사례에서는 비임상적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고독감, 우울감) 및 지역 소속감을 향상을 목표로 하였고,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장년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2020; AHC 2020)

2) 시행 및 협력기관

국내 사회적처방 사례에서의 시행 및 협력기관은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주관으로, 연세대학교 링크사업단(산학협력단), 흥업면 작은도서관, 흥업면 보건지소,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등 5개 기관이며, 캐나다 사례에서는 Alliance for Healthier Communities 주관으로, 11개의 지역보건소, 다양한 지역사회협력기관(의료, 예술, 문화, 사회 서비스)들이 있었다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2020; AHC 2020).

〈그림 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의 사회적처방 모형



3) 실시자

국내 사회적처방 사례의 실시자는 뮤직스토리텔링 강사, 각 분야 문화예술 전문가, 지역사회 봉사자로 이루어졌으며, 캐나다 사례에서는 사회적처방가(의료진, 영양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등) Health Champion, 지역사회 봉사자로 구성하였다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2020; AHC,2020).

4) 장소

국내 사회적처방 사례 실시 장소는 흥업면 경로당, 지역사회 아파트 내 주민복지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흥업면 작은도서관 등 4개 기관이며, 캐나다 사례에서는 온타리오주 전역의 11개의 지역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2020; AHC,2020).

5) 종류

국내에서 실시된 사회적처방의 종류는 음악치료/뮤직스토리텔링, 노래교실, 원예치료, 요리, 코로나마스크 제작, 인형제작, 마을 가꾸기 등 14개이었으며, 캐나다에서 실시된 사회적처방은 운동, 사회적활동, 문화예술활동, 자연활동 등 18개 프로그램이 있었다(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2020; AHC,2020).

〈표 4〉 연구대상지별 사회적처방 프로그램

항목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
프로그램 목표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는 것을 목표	비 의료적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고독감, 우울감) 및 지역 소속감을 향상을 목표
프로그램 일시	2019-2021(3개년)	2018.05-2019.03 (1개년)
프로그램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업면 경로당 • 흥업면 천년나무관리소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 흥업면 작은도서관 	11개의 지역보건소
프로그램	• 뮤직스토리텔링 강사	• Social prescribing Team/Staff (의

실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 문화예술 전문가 • 지역사회 봉사자 	료진, 영양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lth Champions • Volunteers
프로그램 대상자	흥업면 소재 65세 이상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24.9%), 노인(40.1%) • 정신 및 만성질환자 • 알콜, 도박 중독자 •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자)
프로그램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텃밭 가꾸기 • 요리 만들기 • 코로나마스크 제작 • 인형(행복이) 제작 • 음악치료/뮤직스토리텔링 • 노래교실 • 작은음악회 • 비누만들기 • 마을 가꾸기 • 스토리북만들기 • 체조 • 역량강화 • 건강강좌 • 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 자연 및 사회적 활동 • 문화예술 활동 • 커뮤니티 다이닝 • 커피클럽 • 커뮤니티 가든 • 노래그룹 • 뜨개질 • 카드게임 • 중독지지그룹 • 대기실에서 음악공연 • 커뮤니티 키친 • 풀워킹 • 가정방문 • 암환자 자조모임 • 그림 그리기 활동 • 음악 밴드 활동
프로그램 시행 및 협력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업면 작은도서관 •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 연세대학교 링크사업단(산학협력단) • 흥업면 보건지소 •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의 지역보건소 • 지역사회 협력기관(의료, 예술, 문화, 사회 서비스) • Alliance for Healthier Communities

6) 보건의료인(의사) 참여 여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의사가 사회적처방가로서 환자를 진단평가하고, 사회적 처방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은 1, 2, 3차 시범사업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참여하지 않았으나, 4차 시범사업부터는 공중보건의사가 참여하여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하였고, 프로그램 사전 사후 신체 및 우울감 진단평가를 실시하였다.

7) 인력 구성요소 및 역할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에서는 사회적처방가, 네비게이터, 의사가 참여하여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먼저, 흥업면의 경우, 링크워커 대표가 사회적처방가로써, MST(Music Story Telling)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조정을 하였으며, MST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표 5).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회적처방가는 주로 의사나 간호사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사회적 처방을 하였다.

네비게이터의 역할을 보면, 흥업면에서는 MST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프로그램 설문조사 및 관찰, 보고서 작업, 예산관리, 자조 모임 개입을 하였다. 온타리오주의 네비게이터는 환자 매칭 및 지역사회 기반 지지 역할을 맡았다.

흥업면에서는 4차 시범사업부터 의사가 참여하였으며, 의사는 MST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사전-사후 신체, 우울감 진단 및 평가를 하였다. 온타리오주의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사회적 처방을 소개(refer), 진단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8) 사회적처방 유경험자 활용 여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두 사회적처방 사례 모두 '경험이 있는 참가자'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국내사례의 경우 사회적처방에 매회 참가, 개근 수료하고 졸업장을 받으신 어르신들에 한하여 '마을 훈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캐나다 사례에서도 사회적처방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타 대상자들을 위해 프로그램 전반을 촉진하도록 'health champion'이라는 제도를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표 5〉 연구대상지별 사회적처방의 인력 구성 및 역할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 처방		1, 2, 3차 (X)	O
		4차 (O)	
인력 구성요소 및 역할	사회적처방가	사회복지사/음악치료사 MST 총괄 1인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조정	환자 건강상태 파악 및 사회적 처방
	의사	공중보건기사	환자 건강상태 및 사회적처방
	네비게이터	대체의학석사	사회적처방
		보건교육사 보건행정대학원생	
사회적처방 유경험자 자원 활용	마을훈장: 커뮤니티케어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매회차 출석하고, 수료하시고 졸업장을 받은 참가자	Health Champion: 사회적처방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 돕는 역할	

4. 각 연구대상지의 사회적처방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한국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회적처방 모두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대중 매체(mass media)를 활용하였다. 국내 사회적처방은 인터넷 기사와 지역 신문 총 2종의 매체를 활용한, 반면, 캐나다 사회적처방의 경우 인터넷 기사와 지역 신문 뿐 아니라 TV·라디오 방송·사회적처방 협력기관 페이스북 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사회적처방 주관 기관인 Alliance for Healthier Communities를 주축으로 사회적처방 시행 기관인 11개의 지역건강센터(CHC)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사업 운영현황과 ‘Open Source’ 형태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였다(표 6).

〈표 6〉 연구대상지별 사회적처방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항목 명	강원도 흥업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
활용한 대중미디어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기사 • 지역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기사 • 지역 신문 • 라디오 방송 • TV 뉴스방송 • 협력 기관 페이스북 등
미디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업면 커뮤니티케어 사업 눈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tario Morning from CBC Radio

<p>예시</p>	<p>(원주투데이, June.20,2020):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하는 사회적 처방(원주투데이 June 22, 2020):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29 • 연세대 미래캠,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 사회참여 활동 실시 (Veritas. Oct 15. 2019):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878 • 연세대 미래캠 건강도시연구센터, 힐링 음악회 개최 (e-대학저널. July 13, 2020):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15 • 코로나19로 지친 주민 위한 힐링 음악회 개최 (원주신문. July 14. 2020): http://www.iw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59 	<p>(CBC Radio, Nov.20, 2019): https://www.cbc.ca/listen/live-radio/1-112-ontario-morning-from-cbc-radio/clip/15747423-ontario-morning-wednesday-november-20-2019-part-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C Afternoon Drive Radio (CBC News, Jan.22, 2019): https://www.cbc.ca/listen/live-radio?radio_one=ottawa&cbc_music=toronto • The cost of loneliness: Canadian are facing a solitary future (Ottawa Citizen, Dec.22, 2019): https://ottawacitizen.com/health/seniors/does-one-loneliness-kill • Social Prescribing providing to be a success in Guelph (Guelph Today, July 26, 2019): https://www.guelphtoday.com/local-news/social-prescribing-proving-to-be-a-success-in-guelph-1609105 • Doctors pen 'social prescriptions' aimed at easing depression, loneliness in patients (CTV News, Jan.1, 2019): https://www.ctvnews.ca/health/doctors-pen-social-prescriptions-aimed-at-easing-depression-loneliness-in-patients-1.4236834 • Social Prescriptions: sense of belonging could be best medicine (Global News, June 19, 2019): https://globalnews.ca/video/5410124/social-prescriptions-sense-of-belonging-could-be-best-medicine
<p>시범사업 홈페이지 운영 여부</p>	<p>운영하지 않음</p>	<p>운영함</p>

5. 사회적처방의 평가지표

흥업의 사회적처방은 2019.07부터 2020.07까지 총 4차로 구성하였고 각 차수는 8주-11주간 실시되었다. 사회적처방의 평가 시점은 사전과 사후 2회 실시하여 각 평가지표의 전후 점수를 파악하였다. 캐나다 사례는 2018.05부터 2019.03까지 약 1년에 걸쳐 실시되었고 총 3회의 평가 및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지표별 점수를 전, 중, 후로 비교하였다.

흥업 사례의 사회적처방 평가지표는 다섯가지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감, 고독감, 사회활동참여 태도이다. 온타리오주 사례는 주관적 정신건강, 고독감, 사회적지지, 소속감 및 사회적연결감 네 가지가 있었다. 이 중 공통된 평가지표는 고독감이 있었고 유사 평가지표는 사회활동참여태도와 소속감 및 사회적연결감(social connectivity)이 있었다<표 7>.

〈표 7〉 연구대상지별 사회적처방 평가내용 및 사용지표

평가내용 및 사용지표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평가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2019.07 • 후: 20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2019.01 • 2차: 2019.05 • 최종: 2019.11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감 (3.4 감소) • 우울감(GDS-K) (3.6점 감소) • 자기효능감 (3.6점 증가) • 자아존중감 (6.6 증가) • 사회활동 참여태도 (5.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감 (48.5% 감소) • 주관적 정신건강 (12.1% 증가) • 사회적지지 (4.5% 증가) • 소속감 및 사회적 연결감 (각 19.3%, 15.9% 증가)

6. 사회적처방을 통한 소득 창출 여부

흥업면 사회적처방 소득 창출 프로그램은 커뮤니티케어 청년 봉사단, 농업 협동조합, 지역사회 내 상점과의 협력기관을 통해 진행되었다. 반면에 온타리오 주 사회적처방 소득 창출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 흥업면 사회적처방 시범사업에서의 소득 창출 프로그램 종류는 코로나 바이러스 수제 마스크 제작 및 판매, 텃밭 활동을 통한 토마토, 옥수수, 고구마 등 수확물 판매 방

식이다. 흥업면 사회적처방 소득 창출 프로그램 판매 장소는 로컬 푸드존, 플리마켓, 지역사회 협력 상점, 자율 판매대 등 총 4곳이었다. 흥업면 사회적처방 소득 창출 프로그램 소득 금액은 현재 약 50만원이다. 흥업면 사회적처방 소득 창출 프로그램 활용방안은 지역 내 독거노인들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고, 사회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텃밭 활동을 통해 부수적인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표 8>.

<표 8> 연구대상지별 소득 창출 프로그램 여부

항목 명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
프로그램 여부	○	-
프로그램 종류	핸드 메이드 제품 제작 및 판매 텃밭 활동을 통한 수확물 판매	청년을 위한 로컬푸드 교육 및 취업 장려 사업 a local food education and employment project for youth
판매 장소	로컬 푸드존, 플리마켓 협력 상점, 자율 판매대	-
소득 금액	현재 약 50만원	-
소득 활용방안	지역 내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쓰일 예정	-
프로그램 협력 기관	커뮤니티케어 청년 봉사단 농협 마트 지역사회 내 상점	-
판매 대상	흥업면 지역 주민	-

7. 사회적처방과 COVID-19 대비 방역 및 보건의료 활동 현황

1) 현황

2020년 8월 20일 현재, 흥업면 코로나 현황은 총 발생 1건, 완치 1명, 사망자 無, 입원 치료 無, 중환자실 치료 無, 산소호흡기 치료 無이며, 캐나다 온타리오 주 코로나 현황은 총 발생 40,972건 완치 37,215명, 사망 2,792명, 입원 치료 42명, 중환자실 치료 15명, 산소호흡기 치료 10명이다.

2) 예방활동

휴업면 코로나 예방 활동으로는 기본 확산방지 조치 활동(사회적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COVID-19 정보제공, 자가격리지침 제공)과 주 2-3회 방역 활동을 실시 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취약 집단(외국인근로자, 노숙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 코로나 예방활동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제공 및 확인, 자가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감염 통제 및 확진자 발생 통신문을 운영하고 있다.

3) COVID-19 시기 사회적처방 활동

휴업면의 코로나 COVID-19 시기 사회적처방 활동은 비대면 방식 전화상담 실시, 사회적처방 응원상자 전달, 동료집단을 통한 소일거리 제공, 코로나 응원 작은 음악회 실시이다. 온타리오 주의 COVID-19 시기 사회적처방 활동은 CHC 의 의료 제공자 필요시 사회적 처방 의뢰 유지 및 소셜 처방 네비게이터의 전화 및 예약을 통한 후속 조치, 보건소 지역사회 프로그램 직원, 자원봉사자, 참가자와의 비대면 연락이다.

4) COVID-19 사회 복지 지원

휴업면의 코로나 COVID-19 시기 사회 복지 지원은 임시휴교 및 보육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및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지원, 진단비 지원 및 격리치료비용 지원, 취약계층 지원, COVID-19로 마음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이다. 온타리오주의 COVID-19 사회 복지 지원은 긴급재정지원 전기요금 및 임대지원, 취약계층 대피소와 푸드뱅크 운영, 사업주의 이자·별급 구제 및 전기요금 및 임대지원, 근로자 비상휴가 및 권리 보호 조치, 임시휴교·보육 지원 및 홈스쿨링 지원이다(표 9).

〈표 9〉 연구대상지별 COVID-19 대비 방역 및 보건의료 활동

항목명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2020년 8월 20일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 주 (2020년 8월 20일 현재)
COVID-19 현황	총 발생: 1명 완치: 1명 사망: - 입원 치료: - 중환자실 치료: - 산소호흡기 치료: -	총 발생: 40,972 완치: 37,215 사망: 2,784 입원 치료: 42 중환자실 치료: 15 산소호흡기 치료: 10
COVID-19 예방활동	기본 확산방지조치 활동(사회적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COVID-19 정보제공, 자가격리지침 제공) 흥업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방역활동 (주 2~3회 실시)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3030205 코로나-19 관련 취약집단(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관리강화 https://www.wonju.go.kr	기본 확산방지조치 활동(집에 머무르기, 2미터 사회적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COVID-19 정보제공 및 확인, 자가모니터링 및 자가 격리 지침 제공) https://covid-19.ontario.ca COVID-19 감염 통제 및 확진자 발생 통신문 운영 https://www.cachc.ca/wp-content/uploads/2020/03/Sample-CHC-COVID-flow-chart-March-18-2020.pdf
COVID-19 시기의 사회적 처방 활동	비대면 방식 전화상담 실시 사회적 처방 응원박스 전달 (면역증진 음식, 손 소독제, 건강정보지) 동료집단을 통한 소일거리 제공 (수세미, 마스크) 코로나 응원 힐링 음악회 실시	Guelph Community Health Centre에서 의료 제공자 필요시 사회적 처방 의뢰 유지 및 소셜 처방 네비게이터의 전화 및 예약을 통한 후속 조치 Southgorgiabey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프로그램 직원과 자원봉사자 간 참가자와의 비대면 연락 https://www.allianceon.org/news/Ontarios-Social-Prescribing-pilot-project-shows-strength-community-health-interventions
COVID-19 사회 복지 지원	임시휴교 및 보육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및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지원 진단비 지원 및 격리치료비용지원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로 마음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긴급재정지원 전기요금 및 임대지원 https://www.ontario.ca/page/covid-19-support-people 취약계층 대피소와 푸드뱅크 운영 https://www.ontario.ca/page/covid-19-support-people 사업주의 이자 및 벌금 구제 및 전기요금 감면, 임대지원 https://www.ontario.ca/page/covid-19-support-people

	-19-support-businesses 근로자 비상휴가 및 권리 보호 조치 https://www.ontario.ca/page/covid-19-support-workers
	임시휴교, 보육지원 및 홈스쿨링 지원 https://www.ontario.ca/page/covid-19-support-students-and-parents
	정신건강 및 중독자를 위한 지원 https://www.ontario.ca/page/covid-19-support-people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capacity mapping tool을 통해 각 연구대상지의 인구·지리적 현황, 문헌·정책·규제, 사회적처방의 내용, 인력구성,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평가 내용 및 지표, 예산 및 소득 창출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과 캐나다의 사회적처방 사례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두 지역 모두 의사에 의한 사회적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네비게이터에 의한 사회적 프로그램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주시 흥업 지역의 경우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에 의해, 캐나다의 경우 지역보건소에서 GP에 의해 소개(referral)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회적처방 제도에서 네비게이터 혹은 링크워커(link worker)에 의한 의료진-지역사회자원 간의 조정 및 촉진(facilitation)이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 (ACH 2020; Savage et al. 2020). 특히 영국에서는 2020/21 회계연도까지 1,000명의 링크워커를 양성하여 2024년까지 90만명의 대상자를 사회적처방으로 연계(refer)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NHS 2019),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링크워커 양성을 통해 양질의 사회적처방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그동안 사회적처방과 관련하여 한국은 국내 발표 연구논문 두 건과 매뉴얼 한 건이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연구논문 두 건과 보고서 한 건이 검색되어 양국 모두 사회적처방 활동에 대한 연구활동이 있었다. 셋째, 사회적처방의 유형에 있어 두 사례 모두 사회적 활동에 대한 단일처방이 아닌 복합처방(compounded prescription)을 적용하였다.

의학 분야에서의 복합처방이란 한 가지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함을 말한다. 또한, 서로 다른 질병을 동시에 치료하기 위한 경우도 복합처방이라 한다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2008). 본 사회적 처방 활동에 적용해 보았을 때에 두 국가 모두 대상자들에게 두 종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향후에는 단일처방을 우선 실시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코호트연구,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사회적처방의 효과의 양-반응적 관계와 시간적 선후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두 지역 모두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업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원주시 흥업과 온타리오주 사례 모두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인터넷과 지역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처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었다. 여섯째, 평가지표 중에서 두 지역 모두 고독감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사회적처방의 목표인 고독감 감소에 부응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원주시의 경우 우울감이 노인 인구뿐만 아니라 청소년 인구(377명)에서도 유병률이 높은 것(특히 여자 청소년)으로 나타나(Houri et al, 2012), 성별, 연령대별로 다각화된 사회적처방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사회적처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경우 읍면동 수준(흥업면), 1개 대학의 연구소 수준에서 사회적처방을 개발 진행하고 있었고, 캐나다의 경우는 주(state) 수준의 지역에서 1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회적처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규모가 달랐다. 둘째, 캐나다는 지역보건소별로 약 18개의 다양한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고, 한국의 경우 MST와 연계된 활동 즉, MST 개별세션, 스토리북 만들기, 노래 교실, 작은음악회, 자조모임 등 약 14개의 활동이 있었다. 사회적처방의 정성적 분석 결과 전인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시, 사회적처방의 효과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Kings Fund 2017), 정량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통제된 환경에서 단일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겠고 사회적처방 주제별로 용량-반응(dose-reponse)의 구별이 용이한 과학적인 사회적처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각 연구대상

지 인력구성을 살펴본 결과, 두 국가에서 의사, 사회적처방가, 네비게이터, 사회적처방 유경험자를 활용하였던 사항은 동일했으나 네비게이터의 직업적 배경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처방 유경험자 활용 시 부여한 명칭이 달랐다. 또한, 인력 운영시 흥업에서는 링크워커(link 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네비게이터(navig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용어들은 국가 및 문헌 간 혼용되고 있다. 사회적처방을 실시하는 사회적처방가(social prescriber)는 social prescribing link worker, community navigator, community health worker, wellbeing advisor, community agent, community connector, health adviso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강미화 2020). 사회적처방가는 사회적 처방 소개(social prescribing referral)를 통해 환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 및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인력이다. 따라서 링크워커와 네비게이터는 명칭이 다를 뿐 역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두 국가 모두 사회적처방을 경험한 바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차기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돕도록 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마을 훈장’이라는 명칭으로 하였고, 캐나다에서는 health champion 제도를 고안, 활용하였다. 또한, 인력 운영 시 두 국가 모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어 지역사회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세대 건강도시연구센터 2020; AHC 2020). 다섯째, 국내의 경우 사회적처방의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캐나다는 이를 활용하고 있었다. 양국 모두 인터넷기사와 지역 신문을 활용하였고 추가로 온타리오는 TV, 라디오방송, 사회적처방 협력기관의 SNS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다. 또한, 온타리오는 AHC 및 지역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였다. 여섯째, 양국 모두 정량적 평가지표를 사용하였고 고독감과 사회활동 연관지표(한국: 사회활동 참여태도, 캐나다: 사회적지지, 소속감, 사회적연결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이한 지표로 평가하였다. 사회활동 연관지표는 모두 사회활동을 평가하였던 지표로 간주하여 유사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국내의 경우 우울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던 것이 캐나다와 달랐고 캐나다의 경우 주관적 정신건강, 의료기관 방문횟수를 정량화한 것이 다른 점이다. 일곱째, 사업비 재원의 경우 한국은 대학에서 개발한 정부 연구비인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와 링크사업단 예산에 의하

여 대학의 인근 농촌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서 국가 재원으로 11개 지역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어, 캐나다의 규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사례에서는 소득 창출이 이루어졌는데 사업과 연계한 대상자 소득 창출을 위하여 COVID-19용 위생용품을 제작 판매하였고 텃밭에서 재배한 과일 판매 수입금을 노인 대상자의 생활지원금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과학화하기 위한 체계적문헌고찰 논문에서는 사회적처방 연구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Peschney et al. 2019). 또한, 각 사회적처방 연구 별로 사용하였던 평가도구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각 연구의 정량적 비교가 원활하지 못하였다. 이는 근거기반접근법(evidence based approach)에서 널리 활용되는 메타분석(meta-analysis) 방법의 사용이 원활하지 못해 사회적처방의 효능에 대한 근거 제시가 어려울 수 있음을 방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헌고찰을 선행하여 사용 빈도가 높거나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적처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한국과 캐나다의 사회적처방 시범사업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Capacity Mapping Tool을 이용하여, 두 국가의 사회적처방 제도,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사회적 처방 평가 방법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국은 아직 공적인 부문에서의 사회적처방 제도가 아닌 대학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있었고, 캐나다는 보건소 조직을 이용하여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 시범사업의 경우는 대학에서 국가연구비와 대학의 링크사업단 예산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있었고, 캐나다의 경우는 지방 정부 예산에 의해 11개 보건소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두 국가 모두 사회적처방을 경험한 바 있는 유경험자를 활용하여 차기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돕도록 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었다. 한국은 마을 훈장이라는 명칭으로 양성하고 있었고, 캐나다는 health champion 제도를 고안,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사회적처방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두 사례 모두 단일처방이 아닌 복합 처방(compounded prescription)을 적용 운영하고 있었다. 즉, 다양한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사회적 연결감,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양 국가 모두 우울감, 고독감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사업과 연계한 대상자 소득 창출을 위하여 한국은 COVID-19용 위생용품 제작 판매, 텃밭에서 재배한 과일 판매 수입금 등을 노인 대상자의 생활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2. 제언

캐나다와 한국의 사회적처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캐나다는 이미 11개 보건소 조직을 통한 사회적처방 시범이 이루어졌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은 아직 국가 차원의 사업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근시일 내에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으로 개발 운영될 필요가 있다(남은우, 2020b). 이를 위하여, 현재의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의 조사와 더불어 향후 사회적처방 사업화를 대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미화·윤규탁. 2020. 「영국 한인 밀집지역 킹스톤의 사회적 처방 사례」. 미출

- 간 보고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건강도시연구센터. 2020. 「뮤직스토리텔링 매뉴얼북」.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2020. 복합처방을 통한 세균성 질환 치료.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KAR2007027325>
- 김종선. (2019.08.1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건강도시연구센터, 사회적처방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 사회참여 활동 실시.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990>.
- 남은우·김혜경·김마현 역. (2020). 「치매의 사회적 처방」,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 남은우. (2020a). COVID-19와 관련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극복을 위한 사회적 처방 제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1):113-116.
- 남은우. (2020b). 사회적처방 개념 소개 및 코로나-19 이후 보험자의 역할 모색, 건강보험공단 특강자료, 2020.06.16.
- 박대한. 영국, 외로운 이들에 쿠킹클래스·걷기동호회 ‘처방’한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5169400085?input=1195m>.
- 송그림·조혜연·남은우. (2019). 강원도 한 농촌지역에서의 노인 우울증 경감을 위한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대한보건연구」, 45(4):77-87.
- 최보연. (2019). 고독해결을 위한 ‘예술기반 사회적처방’ 정책 확산과 문화정책적 함의: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6(1):233-268.

Alliance for Healthier Community. (2020). *Social Prescribing in Ontario: Final Report*. Toronto: AHC.

Arts Council England. (2004). *Dance and Health*. London: ACE.

Bikerdike, L., Booth, A., Wilson, P.M., Farley, K., & Wright, K. (2017). *Social prescribing: Less rhetoric and more reality*.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BMJ Open* 7:1-17.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Laying the Foundation for*

- Change*. London: DCMS.
- Healthy London Partnership. (2018). *Step Towards Implementing Self-Care: A Focus on Social Prescribing for Commissioners*. London: HLP.
- Houri, D., Nam, E.W., Choe, E.H., Liu, Z.M., & Matsumoto, K. (2012).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 school children: a comparison among Japan, Korea, and China. *Global Health Promotion*. 19(3):32-41.
- LaFond, A.K., Brown L. & Macintyre K. (2002). Mapping capacity in the health sector: A conceptual framework. *Intl J Health Planning and Manage*. 17(1):3-22. DOI:10.1002/hpm.649.
- Ma, L.L., Wang, Y.Y., Yang, Z.H., Huang, D., Weng, H., & Zeng, X.T. (2020). Methodological quality (risk of bias) assessment tools for primary and secondary medical studies: what are they and which is better? *Military Medical Research*. 7, 7. doi.org/10.1186/s40779-020-00238-8
- Matthew, J.P., McKenzie, J.E., & Higgins, J.P. (2018). Tools for assessing risk of reporting biases in studies and syntheses of studies: a systematic review. *BMJ Open*. 8(3): e019703. doi: 10.1136/bmjopen-2017-019703
- Mittelmark, M.B., Wise, M., Nam, E.W., Santos-Burgoa, C., Fosse, E., Saan, H., & Tang, K.C. (2006). Mapping national capacity to engage in health promotion: Overview of issues and approaches. *Health Promotion Intl*. 21(Suppl.1):91-98.
- Moffatt, S., Steer, M., Lawson, S., Penn, L., & O'Brien, N. (2017). Link worker social prescribing to improve health and wellbeing for people with long-term conditions: Qualitative study of service user perceptions. *BMJ Open*. 7(7):e015203.
- Savage, R.D., Stall, N.M, & Rochon, P.A. (2019). Looking before we leap: Building the evidence for social prescribing for lonely older adult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8(2):429-431. doi.org/10.1111/jgs.16251
- South, J., Higgins, T.J., Woodall, J., & White, S.M. (2008). Can social

prescribing provide the missing link? *Primary Health Care Research and Development*. 9(4):310-318.

The Guardian. (2020). UK coronavirus victims have lain undetected at home for two week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un/07/uk-coronavirus-victims-have-lain-undetected-at-home-for-two-weeks>

The King's Fund. (2017). What is Social Prescribing? The King's Fund (02 Feb 17). <https://www.kingsfund.org.uk/publications/social-prescribing> (최종검색일: 2020/08/17).



Comparison of Social Prescribing Pilot Project Using Capacity Mapping Tool: The Case Study of Wonju, South Korea and Ontario, Canada

Hae Kweun Nam
Yonsei University, Korea

Subeen Lim
Yonsei University, Korea

Sangmin Lee
Yonsei University, Korea

Yulim Lee
Yonsei University, Korea

Ministry of Loneliness in England is implementing social prescribing to tackle increasing loneliness nationwide. Also, a social prescribing pilot study was completed in Ontario, Canada. A university in South Korea developed social prescribing scheme targeting lonely elderly population (age>65) in a rural area. We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social prescribing in Heung-up, South Korea and Ontario, Canada by seven dimensions using capacity mapping tool.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ing. First, social prescribing developed by a university in South Korea remains non-public scheme; whereas, Canadian case is state-wide scheme implemented by community health centers. Second, both cases selected compounded prescriptions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program is responsible for which result. Third, both countries utilized experienced 'social prescriber' to facilitate the ongoing and future social prescribing program. In Korea, the prescribers were called 'hunjang', which means village teacher; in Canada, a very similar system was established as 'health champion'. Fourth, psychological and social interaction indexes (loneliness, depression, social connectivity, self-efficacy, and etc.) were improved as the outcome of social prescribing in both countries. Fifth, Canada used various communication tools including a webpage with continuous updates while Korea used the news as main communication tool. Sixth, Korea raised funds by producing and selling hand-made COVID-19 masks and dolls;

and vegetables and fruits from community farming facility. Seventh, both countries considered preventive measures for COVID-19 preparedness by social distancing, sterilization, and conducting untact social prescribing.

In conclusion, both South Korean and Canadian cases presented strengths and challenges for the social prescribing scheme. To institutionalize and develop the social prescribing city or province-wide scheme, South Korea may learn from Canadian large-scale intervention. Also, the leadership of MOH(Ministry of Health) and NHIC(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s important to mobilize existing community resources and to propel the social prescribing scheme by cooperating with the medical sector.

[Key Words: Social Prescribing, South Korea, Canada, Capacity Mapping]

논문접수일: 2020년 09월 08일

논문수정일: 2020년 11월 07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3일

제1저자(주저자): 남해권(Hae Kweun Nam)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과(예방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관심 분야는 사회적처방, 지역사회보건, 비타민D의 건강영향이다 (namhk@yonsei.ac.kr).

제2저자: 임수빈(Subeen Lim)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및 연세글로벌헬스센터의 연구원으로 있으며, 관심 분야는 국제보건, 커뮤니티케어, 사회적처방, 건강도시 등이다(sutootoo@gmail.com).

제3저자: 이상민(Sangmin Lee)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과에 재학중이다.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및 연세글로벌헬스센터에서 KOICA YP인턴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커뮤니티케어, 사회적처방, 국제개발협력, 국제보건 등이다(a_cassano@naver.com).

제4저자(교신저자): 이유림(Yu Lim Lee)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박사과정 재학중이다.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및 연세글로벌헬스센터의 연구원이며, 관심 분야는 커뮤니티케어, 사회적처방, 건강도시, 지역사회보건 등이다(ms8336@yonsei.ac.kr).